

고려대 편입 2019 인문

✎ [문제 1] 지문 (1)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30점, 350~450자)

✎ [문제 2] 지문 (1)을 바탕으로 지문 (2), (3), (4)에 등장하는 '꿀찌주자', '페렐만', '허삼관'을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70점, 1100~1300자)

제시문 1

행복한 사람은 실로 다채롭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으로부터 쉽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흔한 불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흔들린다면 수없이 닥치는 커다란 불운에 의해서만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운으로부터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길고도 완결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을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탁월성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으로서, 그것이 재능의 탁월성이건, 도덕적 탁월성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이 무엇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또한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생애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며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는 그럴 것이다. 미래는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는 행복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며, 활동은 생겨나는 것이지 소유물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활동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의 활동은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성취하는 것도 한편으로 즐거운 것에 속한다.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마련인데, 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친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친구들을 돕거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탁월성에 맞는 활동에 쓴다.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 반해,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보다 쉽게 보장되고,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

이다.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에 따른 행위들을 보며 기뻐하고, 악덕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을 역겨워한다.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탁월성을 연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취 중에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그것이 학문적 지식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2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뱉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싫어서였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잘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된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것만 같은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독한 환호에 다른 사람들도 합세를 해주었다. 풀씨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이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끝인한 풀씨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많은 일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풀씨 주자에게까지 보낸 열광적인 박수갈채는 몇 년 전 어떤 경기에서 일등을 한 선수에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제시문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허름한 주택에서 사는 수학자 페렐만은 수학 분야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푸앵 카레 추측’을 풀었다. 푸앵 카레 추측은 1904년에 프랑스 수학자 앙리 푸앵 카레가 제기한 문제로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가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는 그 공로를 인정해 페렐만을 100만 달러의 상금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고 돈이나 권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길 원치 않는다”며 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전에도 페렐만은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인 ‘필즈 메달’도 거부했었다. 페렐만은 현재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낡은 주택에서 살며,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다.

제시문 4

성안의 생산 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 허삼관은 다른 몇몇 친구들처럼 궁핍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평생 피를 팔아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피를 팔아 어려운 시절을 넘겨온 허삼관은 어느새 노년이 되었다. 그날 기분 좋게 길을 가던 중, 문득 승리반점 앞을 지나면서 허삼관은 돼지간볶음 냄새를 맡게 되었고 젊은 시절 피를 팔 때마다 보양을 위해 먹었던 붉은 돼지간볶음과 데운 황주 두 냥이 먹고 싶어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매혈(賣血)을 중재해왔던 혈두가 죽은 뒤 새로 온 심씨 성을 가진 젊은 혈두는 허삼관이 너무 늙어서 살아 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더 많다고 거절을 하며, 게다가 그의 피는 이제 돼지 피처럼 가구 칠감에나 어울린다고 비웃고 시시덕거리자, 허삼관은 성을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그는 자신이 어느덧 피를 더 팔지도 못할 만큼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허삼관의 세 아들과 아내 허옥란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 곧 바로 세 아들과 아내가 허삼관을 찾아오는데, 세 아들은 아버지가 운 이유를 듣고 고작 그것 때문이었냐고 아버지에게 핀잔을 준다. 그러자 허옥란은 아버지는 평생 피를 팔아서 너희들 모두를 키우고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세 아들에게 한바탕 욕을 한 뒤, 허삼관을 데리고 승리반점으로 들어간다. 피를 팔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아내가 잔뜩 시키자, 비로소 허삼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피어났다.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 름	
대학교		학년도		계열	
		기출 / 모의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275													
1300													

📌 [문제 1] 지문 (1)의 논지를 요약하시오 (30점, 350~450자)

📌 [문제 2] 지문 (1)을 바탕으로 지문 (2), (3), (4)에 등장하는 '꼴찌주자', '페렐만', '허삼관'을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70점, 1100~1300자)

[독해]

지문 (1)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탁월성에 따른 고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취 → 나와 너의 안정적인 행복

지문 (2) 최하위 성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경기를 완주하는 주자, 그를 보고 감동을 받는 화자

지문 (3)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세계적 난제까지 풀었으나, 그에 대한 동료들의 인정을 무시하는 페렐만

지문 (4) 늙기까지 오랫동안 피를 팔아서 가족들을 부양한 허삼관 → 아내가 그 노고를 인정해 주자 그제서야 웃음

[논리평면] 가치추론(요약+적용)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1	더불어 삶 + 탁월성 + 지속성	나와 너의 안정적인 행복	Good
대상	2	꼴찌여도 묵묵하게 완주	스스로 행복 + 타인에게 감동 전함	good
	3	탁월한 연구 성과	스스로는 행복할 수 있으나,	good
		but 동료 인정 무시	안정성 부족하고, 타인과 더불어 행복 x	bad
4	피를 팔아 가족 부양 + 아내의 인정	지속적으로 안정적 행복을 누릴 수 있음	good	

[예시답안] 1번 411자, 2번 1286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더불어 살아가면서 탁월성에 따라 고귀한 활동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기준 상술	지문 (1)에 나타나듯, 행복이란 고귀한 활동에 따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선 탁월성이 필요하다. 탁월성이란, 본성을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기능적, 도덕적 역량이 모두 포함된다. 이 역량이 높아야 행복에 이르는 본질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을 위해서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단절 속에서는 쉽지 않은 지속성이 타자와의 연대 속에서는 수월하게 갖춰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삶 속에서 탁월성 그 자체도 길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은 고귀한 성취는 안정적인 행복을 수반하며, 따라서 행복한 사람은 쉽게 그 행복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1번: 411자]
2	주장	지문 (1)의 관점에서 지문 (2)의 '꼴찌주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그는 마라톤 시합에서 최하위 성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결승점까지 성실하게 달렸다. 성적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꼴찌의 고독을 인내하며 우

		직하게 완주해냈다. 이 모습을 본 화자는 그에게서 위대함을 느꼈고, 이에 감동과 즐거움을 느꼈다. 꼴찌라는 성적이 주는 비참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그 선수의 모습에게서 화자는 숭고함을 느낀 것이다.
	적용	이렇듯 꼴찌주자는 본질적 가치를 실천해 내는 고귀함을 가진 인물로서 행복의 본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끝내 실천해 내는 우직함이 있었고, 이러한 의지가 그에게 행복을 안겨줬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참관객인 화자에게도 전해졌다. 숭고한 정신을 두 눈 앞에서 지켜보면서 화자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3	주장	반면, 수학자 페렐만은 행복에 있어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대상	지문 (3)를 보면, 그는 세속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수학적 진리를 밝힌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수학 연구에 일생을 쏟았고, 그 결과 세계적 난제인 ‘푸앵 카레의 추측’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공로를 인정하는 수학자 집단의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세상과의 소통도 일절 없이 그는 홀로 연구에만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	이러한 페렐만의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순수한 사랑은 그 자체로 고귀한 활동이고, 또 그 연구의 꾸준함과 더불어 탁월한 성취도 달성한 만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동료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의 행보는 타자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볼 순 없을 것이다.
4	주장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문 (4)의 허삼관은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허삼관은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 가족들을 부양하고자 평생 피를 팔아 온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늙어 더 이상 피를 팔 수 없게 되자, 슬픔에 잠겼고, 세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핀잔을 준다. 그러나 그의 아내만큼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정성으로 대접했고, 그제서야 허삼관은 밝게 웃을 수 있었다.
	적용	허삼관은 가족을 부양한다는 고귀한 가치를 일평생 실천한 인물로서 행복을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라고 하겠다. 다만, 그도 아내가 그 공로를 인정해주기 전까진 밝게 웃을 수 없었다. 이처럼, 행복을 위한 지속성이란, 혼자서 갖추기 힘든 것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1286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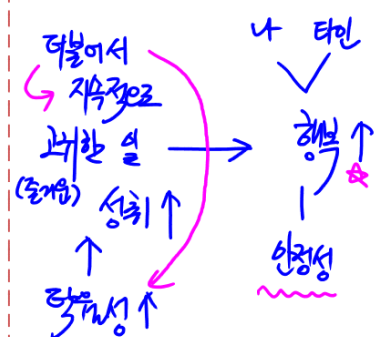
제시문 1

행복한 사람은 실로 다채롭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으로부터 쉽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혼란 불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흔들린다면 수없이 닥치는 커다란 불운에 의해서만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운으로부터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길고도 완결된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을 성취한 후에 비로소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탁월성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으로서, 그것이 재능의 탁월성이건, 도덕적 탁월성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이 무엇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또한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생애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며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는 그럴 것이다. 미래는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는 행복이 목적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며, 활동은 생겨나는 것이지 소유물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활동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의 활동은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성취하는 것도 한편으로 즐거운 것에 속한다.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마련인데, 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친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친구들을 돕거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탁월성에 맞는 활동에 쓴다.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면 보다 쉽게 보장되고,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에 따른 행위들을 보며 기뻐하고, 악덕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을 역겨워한다.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탁월성을 연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취 중에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그것이 학문적 지식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목표: "본질적 가치 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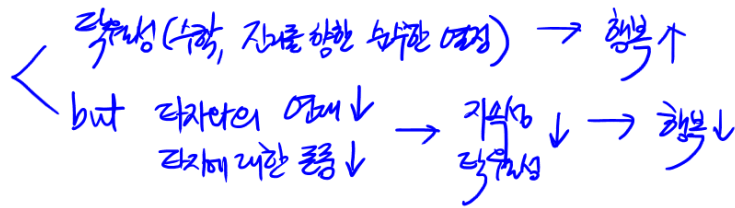
제시문 2

나는 그런 표정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꼈다. 여태껏 그렇게 정직하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그렇게 정직하게 고독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나는 그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냅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싫어서였다. 그는 지금 그가 괴롭고 고독하지만 위대하다는 걸 잘 알아야 했다. 나는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리며 그를 향해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보면 안 된다. 나는 그가 주저앉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것만 같은 어떤 미신적인 연대감마저 느끼며 실로 열렬하고도 우렁찬 환영을 했다. 내 고통한 환호에 다른 사람들도 함세를 해주었다. 꼴찌 주자까지를 그렇게 열렬하게 성원하고 나니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환호하고픈 오랜 갈망을 마음껏 풀 수 있었던 내 몸은 날듯이 가벼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라톤이란 매력 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밖에 생각 안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것이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 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꼴찌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나는 아직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의 참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들이 체력으로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일 중에서 그 일을 택했을까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날 내가 꼴찌 주자에게 까지 보낸 열광적인 박수갈채는 몇 년 전 어떤 경기에서 일등을 한 선수에게 보낸 환호만큼이나 신나는 것이었고, 더 감동스러운 것이었고, 더 육친애적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희열을 동반한 것이었다.

꼴찌 주자의 위대한 행동 → 락카에게도
 |
 우습하게
 끝까지 달려서
 골인
 행진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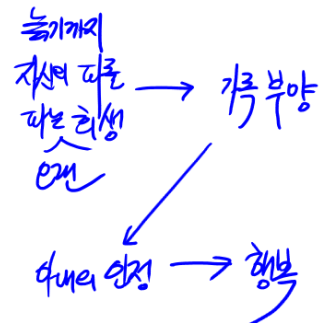
제시문 3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허름한 주택에서 사는 수학자 페렐만은 수학 분야 최대 난제 중 하나인 '푸앵 카레 추측'을 풀었다. 푸앵 카레 추측은 1904년에 프랑스 수학자 앙리 푸앵 카레가 제기한 문제로 오랫동안 수많은 학자가 매달렸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의 클레이 수학 연구소는 그 공로를 인정해 페렐만을 100만 달러의 상금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그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고 돈이나 권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동물원의 동물처럼 전시되길 원치 않는다"며 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전에도 페렐만은 수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인 '필즈 메달'도 거부했었다. 페렐만은 현재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낡은 주택에서 살며,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다.



제시문 4

성안의 생산 공장에서 누에고치 대주는 일을 하는 노동자 허삼관은 다른 몇몇 친구들과처럼 궁핍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평생 피를 팔아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피를 팔아 어려운 시절을 넘겨온 허삼관은 어느새 노년이 되었다. 그날 기분 좋게 길을 가던 중, 문득 승리반점 앞을 지나면서 허삼관은 돼지간볶음 냄새를 맡게 되었고 젊은 시절 피를 팔 때 마다 보양을 위해 먹었던 붉은 돼지간볶음과 데운 황주 두 냇이 먹고 싶어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팔려고 한다. 그러나 매혈(賣血)을 중재해왔던 혈두가 죽은 뒤 새로 온 심씨 성을 가진 젊은 혈두는 허삼관이 너무 늙어서 살아 있는 피보다 죽은 피가 더 많다고 거절을 하며, 게다가 그의 피는 이제 돼지 피처럼 가구 칠감에나 어울린다고 비웃고 시시덕거리자, 허삼관은 성을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그는 자신이 어느덧 피를 더 팔지도 못할 만큼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이 허삼관의 세 아들과 아내 허옥란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다. 곧 바로 세 아들과 아내가 허삼관을 찾아오는데, 세 아들은 아버지가 운 이유를 듣고 고작 그것 때문이었냐고 아버지에게 핀잔을 준다. 그러자 허옥란은 아버지는 평생 피를 팔아서 너희들 모두를 키우고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 세 아들에게 한바탕 욕을 한 뒤, 허삼관을 데리고 승리반점으로 들어간다. 피를 팔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아내가 잔뜩 시키자, 비로소 허삼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피어났다.



① 경제 활동 지양했다 행복? ... 근세... 행복의 기준 너무 주관적이었었다. 즉위성에 따르는 행복이 아니라!

NO.1
 ㉠ 행복은 고정성, 탁월성, 목적지향성, 능동성의 특징을 가진다. 즉 행복한 사람은 주변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탁월함으로 행복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탁월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행복은 머물러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동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이것은 행복이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느껴야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현실추구형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목적 지향적 특징도 가진다. 현실추구형 인간은 먼 미래나 과거의 일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탁월성 또한 갖추고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1의 여러 가지 행복한 인간의 조건들을 보았을 때, 폴찌주자와 허삼관은 행복한 사람으로, 페렐만은 부분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폴찌주자는 마라톤에서 비록 꼴찌를 하고 있지만, 그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완주 목적만을 향해 달려나가기에 행복한 사람의 조건인 고정성과 목적지향성의 특징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 중 하나인 활동을 실천한 사람이다. 즉 그는 행복이라는 것을 마라톤이라는 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마라톤이라는 활동을 통해 2의 필자를 때려서 기 때문에 행복을 함께 실천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① 활동 실천? 러한 활동이야지... 그냥 활동... not good.

한편 제시문 4의 허삼관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목적지향적 인물이고 또한 자신의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가 자신을 위해 피를 팔기를 시도하였지만, 이것은 스스로만을 위한 행동이었기

㉡ 행복에 대한 질문 시의 취재를 가장 유익으로 작업에 관여하는가? 에 대해서는 리얼리티가 다소 가깝고, 부자연스러워.

행복에 대한 훌륭한 개념은 어떤 것인가?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내가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취-설이 흥미로워?
 취미에 쓸 때 낼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강하게는 내면 안 되는 것인데...

㉣ 무엇이든 크기가 된다.
 이 크기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것이 아닌 다른 안보? 어떤 뜻 인간다 현실추구형이야?
 '10억 인간' 아닌 말하듯 인간, 그 의미가 큰데 기쁘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는 취재에서 중요한 내용 X

㉥ 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서두에 모아놓은 것은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취재를 사실로 믿고서 움직이게 해. 항상 한 문단 차이를 해오라는 취재가 아닌 기지. 1000자 남는 취재서 취재할 수는 X.

㉦ 행복이 딱 fix된 건 아니야. 환경성이 높은 편이야.

① 대상이 중요(배경)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무엇이 들지 않는다.
 매개체가 제시문에 대한 사실적 취재이고, 매개체가 어느 정도의 취재가 분명하게 구분할 것!
 어떤 다른 수단으로 취재까지! 취재가 어떤 취재에 의해서 취재된 것이 아닌, 전혀 안 읽었다는 취재 해제를 할 것.

NO.2

에 비록 이 행동의 결과가 좌절되었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인해 허삼관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는 비록 세 아들에게 핀
 잔을 들었을지라도 그의 평생의 희생정신을 아내
 허옥란이 인정해주면서 그의 지속적인 활동은 행
 복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생애정신의 태도
 마지막으로 페렐만은 자신의 수학적 탁월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
 게 되든 그는 자신만의 재능적 탁월함을 발휘하
 였다는 점에서 그는 행복의 고정적인 특성을 실
 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페렐만은 상급 수
 령도 거부하는 주체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특성도
 보여준다. 그는 현실에 충실하며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성취해내는 행복한 사람의 특
 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혼자 살며
 자신의 수학적 탁월성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과
 평생 상호작용을 거부한 채 홀로 살아간다. 이러
 한 모습을 통해서 페렐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즐
 거움을 추구하는 지속성의 측면은 달성하지 못하
 면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을 일부 성취하지 못한
 다고 할 수 있다.

㉓

- * 충성
1. 가문에 대한 아버지 권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2. 1이 충족되면 2는 충성 지능으로 치환된다.
 3. 동등에 대한 태도로 잘 지어 있다,
 인본주의 성취에 있어 있다.
 특히 fact와 meaning을 잘 구분해서 보아야.
 4. 동등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충족한다...
 강압에 기대하는 것은 꼭 더 높다.
 최강적 동등 속에서 유지된 동등은 보아야.
- 그래서 충성 한 정도 잘 지어지면 강등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한다.

④ 스스로만 위한 행동은
 좌절되면 행복에 영향을
 줘야 하는가? 가문에 대한
 능력이 강해진 게 있나...?
 Not food. 가문 안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정통'에서 리가 났나.
 스스로 생각할 때, 애매하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믿어볼지 말지,
 가문 제약을 재차 인식할 것.

㉓ 아 ㉓이 하위까지 X.

⑤ '행복의 충성'에 대한
 논쟁이 이해(충성)와 신념(충성)과
 불충(충성)에 대한 충성(충성)의
 필요. 가문에서 신념(충성)과
 충성(충성)이 영향을 주는 부분.

A-
 ~ B+